

# ‘코스피 급락 = 바겐세일’ 재미군단, 삼성·SK 쓸어 담았다

전 세계 ‘트럼프 세션’ 공포에도 개인, 이달 코스피 5.1조 순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3.2조 매수  
현대차·기아도 7000억 사들여  
삼성·SK 저점매수 전략은 유효  
車 업종 목표가 하향, 부정전망



ChatGPT로 생성한 ‘국내 반도체·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재미(개인 투자자)’ 이미지.

직장인 A(36)씨는 지난 9일 삼성전자 주식 400주를 주당 5만4000원에 샀다. 220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그는 “6만원 선이 깨지자 서둘러 매수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세금을 댄 월급 실수령액 450만원가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200주가량 사모으는 식이다. 이렇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1600여 주에 달한다.

전 세계에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 공포가 짙어졌지만, 재미 군단의 진격을 막을 순 없었다. 4월 들어 코스피가 88포인트 넘게 급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오히려 ‘바겐세일’로 여긴 모습이었다. ‘K-반도체’와 ‘K-자동차’

들이 대상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시가 급락했던 이달 1~11일 9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1041억원가량 주식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인 8조4958억원어치 순매도한 물량을 받아낸 결과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쓸어 담았다. 개인이 이 기간 순매수한 금액은 3조1981억원에 이른다. 재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인 전체 금액의 63%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4조3345억원 판 것과 대조적

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5192억원, 2091억원 사들이며 개인 순매수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5545억원, 2125억원 팔았다.

개인들이 ‘전차’(전기, 자동차)에 ‘물빵’ 투자한 것은 ‘주가는 폭락 후 반등한다’는 학습 효과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전자주 투자에 집중하는

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삼전이 안 오르면 대한민국 망한다” “6만원 밑이면 무조건 줍줍(줍고 또 줍는다) 기회다” 등의 글이 넘쳐난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관세 부과 우려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7배까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 이 부각되고 있다”며 “디램(DRAM) 경쟁력이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SK하이닉스 역시 비중확대 시점으로 평가됐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7000억원, 2분기는 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키움증권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다. 박유아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컨슈머 디바이스의 수요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이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 호재가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증권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들어 현대차에 대한 종목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 중 5곳이 목표가를 내렸으며, 나머지 1곳도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동일 기간 기아도 의견을 제시한 12개사 중 5개사가 목표가를 낮췄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 “팰리세이드, 투싼, 아이오닉 등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 관련한 타격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완성차에만 국한해서 관세 영향을 짐작해봐도 경쟁사들이 당장 가격 인상 자체하면서 관세 부담을 OEM(제조업체)들이 짊어지고 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25년 매출액은 181조원, 영업이익은 13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2.1%, 11.9% 하향 조정된 수치다.

/신한 기자 godhe@metroseoul.co.kr

## 中 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하락 ‘빨간불’

미·중 관세전쟁 후폭풍  
국내 설정 185개 中펀드 수익률  
평균 -10.86%, 타국대비 폭 커

중국 증시가 미·중 관세전쟁 이슈로 휘청이자 중국펀드 수익률도 고꾸라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곧장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올려 맞대응하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고개를 들고 신중국 자금 유출까지 가속화됐다. 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 연초보다 더 떨어졌고 지난 3월 2400선대로 올라섰던 홍콩 증시는 지난해 말 수준인 2000선 초반으로 밀려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내 설정된 185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간 평균 수익률은 -10.8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북미(-3.89%), 브라질(-4.22%), 러시아(-4.71%), 인도(-5.68%) 펀드와 비교해도 손실 폭이 가장 컸다. 한 달 수익률 역시 -15.07%로,

브라질(2.26%), 인도(0.52%), 북미(-5.55%), 유럽(-13.72%), 일본(-14.04%) 등 주요국 펀드에 비해 가장 저조했다.

관세전쟁 이슈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파장을 집어삼킨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중국증시가 악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관세전쟁 이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에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무역전쟁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철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중 양국이 강대 강대치로부터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일 단락되기 전까지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호재도

있다. 중국은 ‘여론전’과 함께 위안화 평가 절하 신호를 보내며 국부펀드를 통한 증시 방어 등의 ‘장기전’ 대책도 시작했다. 중앙후이진 등 중국 국부펀드들은 7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을 늘린다는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대표 상장사들은 미국의 ‘관세폭탄’ 충격에 최근 급락했던 자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200억위안(약 3조9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중타이증권의 슈츠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 “패닉 확산을 막고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애버딘 인베스트먼트의 레이 샤르마-웅은 중국 당국이 내놓을 부양책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재개 등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 안정화 기금 증액과 출산·아동 보조금 같은 추가 소비 진작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원금 지급형’ IMA 내년 도입  
금융당국, 3분기 인가접수, 연내 지정  
사실상 올해가 ‘1차 진입 골든타임’

‘한국판 골드만삭스’ 1호 타이틀을 놓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본격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원금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이르면 내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증권업 기업금융 제도 방안’을 통해 종투자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3분기 중 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발행어음 4조원, IMA 8조원으로 나뉘며, 내년부터는 제재 이력과 사업계획 검토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업계는 올해를 사실상 ‘1차 진입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IMA 인가 요건(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양사는 각각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발행어음 시장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IMA 업무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IMA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구조가 명문화되면서, 대형사들이 기존 부동산금융 중심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겨냥한 상품 구상과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IMA 도입을 위



Chat GPT로 생성한 ‘초대형 증권사’를 향해 달려가는 증권사들의 경쟁.

한 전략적 방향을 내부적으로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계열사 거래 관련 논란과 입찰 관련 사안이 미래에셋증권의 향후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 사업자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 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IMA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초대형 IB 진입을 노린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5조4945억원으로 4조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IMA 요건인 8조원에는 미달한 상태다. 회사 측은 “그동안 내부 회의체를 통해 진출을 검토해왔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만큼 도전하기로 했다”며 “초대형 IB 준비는 내부통제 강화 기초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부통제”라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 예탁원 ‘K-Camp’ 비수도권 창업 성과

5년간 262개사 수료, 신규고용 733명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Camp’가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예탁원에 따르면 K-Camp는 지난 2019년 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혁신창업기업 지

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은 지역 내 기타 혁신기업지원 활동 증폭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운영됐다. 약 5년간 총 262개사가 K-Camp를 수료했으며, 이 기간 동안 누적 733명의 신규 고용과 1025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특히 K-Camp는 매년 일관된 성과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특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만 해도 93억1000만원의 투자 유치와 13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더해 매출이 144억2200만원 증가했으며, 연구개발(R&D) 협력과 자본 조달 업무협약, 타 창업지원 사업 선정 등을 포함한 135건의 사업 제휴도 이뤄지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원관희 기자